승가 화합·정법 위한 안전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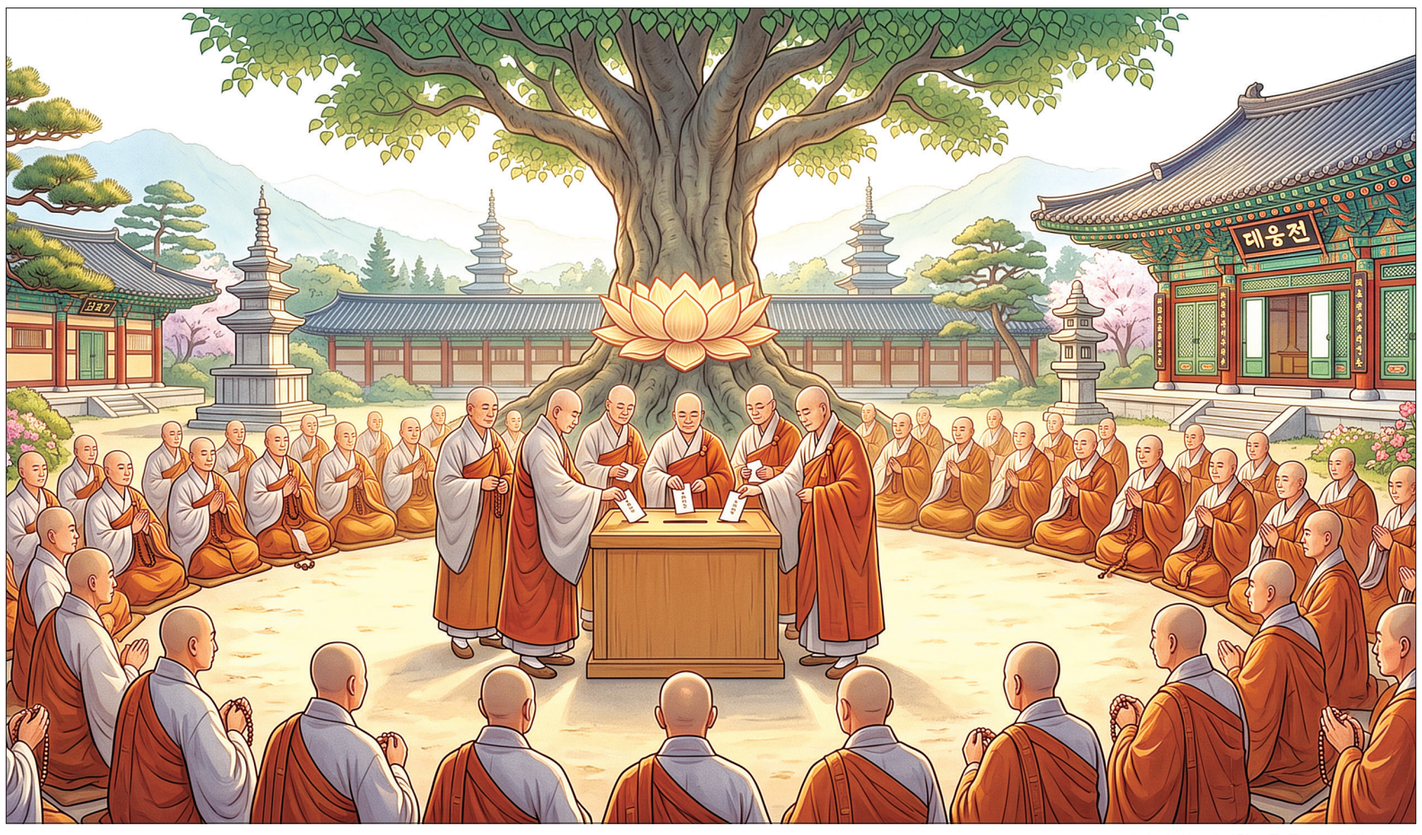
금강스님의 계율 이야기

⑦ 승가의 선거(투표)

Yāvakīvañ ca bhikkhave bhikkhū samaggā sannipatissanti samaggā vuṭṭhahissanti samaggā saṅgha-karaṇīyāni karissanti, vuddhi yeva bhikkhave bhikkhūnaṃ pāṭikaṅkhā no parihāni.

비구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승가 행사를 하는 동안은 비구들이여, 비구들에게 번영이 기대될 뿐 쇠망은 없을 것이다.

– 〈디가니까야〉 '대반열반경' –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6월 3일에 우리는 지방선거를 통해 각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를 치렀다.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참여하고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를 실천한 것이다. 나라의 선거 말고도 종교, 특히 이웃 종교인 천주교에도 교황을 선출하는 전통적인 과정이 있다. 이 또한 현대적 의미의 선거로 볼 수 있다. 천주교의 가장 대표적인 선거 방식은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단이 모여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Conclave)'다. 다만 이는 특수한 직책을 가진 일부가 참여하는 제한적 선거인 반면, 불교 승가는 '갈마(羯磨)'의 조건에 따라 모든 비구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모든 비구가 한자리에 모여야 하지만,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이들이 매번 물리적으로 함께하기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승가는 **'결계(結界, sīmā)'** 구역을 설정했다. 결계란 특정한 지역을 승가의 자치 권역으로 묶는 것을 말한다. 이 구역 안에 상주하는 모든 비구는 승가의 핵심 행사인 포살(布薩)·자자(自恣)·갈마에 의무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결계 구역은 주로 사원을 중심으로 설정하되 반드시 인근 마을을 포함했다. 비구들이 탁발을 통해 수행 생활의 기본인 식(食)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계는 큰 바위, 강의 분기점, 누구나 알 수 있는 마을의 큰 나무 등 명확한 자연 지형이나 지적 표식을 연결해 지정했다. 이 결계 구역은 오직 승가의 활동 영역일 뿐, 세속의 토지 소유권이나 행정 구역의 경계와는 무관하다. 결계 내의 승가는 철저히 독립성을 유지하며 이를 '현전승가(現前僧伽)'라고 부른다. 결계 구역은 구성원들의 수행 생활에 맞춰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으며, 안거 기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결계가 성립된 현전승가는 승가의 청정함과 화합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교주(教主)'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주의 독단 대신 승가 대중의 공의(公議)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승가의 구성원인 비구는 세속의 나이나 법랍,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행사한다. 붓다가 생존해 있을 당시에는 붓다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거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지만, 열반 이후에는 붓다가 남긴 '법(Dhamma)'과 '율(Vinaya)'에 의지해 각자 깨달음을 성취해 나갔다. 결국 법과 율을 지키며 살아가는 비구 개개인이 정법(正法)의 기준이 되며, 그 비구들로 이루어진 승가 자체가 붓다를 대신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 **승가 선거, 갈마 따라 모든 비구 참여**
> **절대 권력 교주 없이 대중 공의 중시**
> **결계 구역 비구 '만장일치' 합의 원칙**
> **논쟁 시 다수결 '다멱비니' 최후 수단**

Ye hi keci Ānanda etarahi vā mamaṃ vā accayena atta-dīpā viharissanti atta-saraṇā anañña-saraṇā, dhamma-dīpā dhamma-saraṇā anañña-saraṇā, tamatagge me te Ānanda bhikkhū bhavissanti ye keci sikkhā-kāmā' ti.

阿難 自熾燃 熾燃於法 勿他熾燃 當自歸依 歸依於法 勿他歸依.

佛告阿難 吾滅度後 能有修行此法者 則爲眞我弟子第一學者.

아난다여, 지금이나 내가 가고 난 후에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의처로 삼지 말며,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에 귀의하지 말라. 이와 같이 수행하며 배우기를 구하는 비구들이야말로 내 제자 중 가장 최고의 수행자가 될 것이다.

– 〈디가니까야〉 '대반열반경' –

붓다는 열반에 들기 전, 자신을 대신해 승가를 이끌거나 대표할 후계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한때 교주의 자리를 탐했던 제바달다가 권력을 요구했을 때도, 심지어 상수제자인 사리불이나 목건련에게조차 승가의 통솔권을 부촉(咐囑)하지 않았다. 이처럼 불교는 특정 개인의 지배를 배격하고, 각 개인의 자율적인 수행 생활을 철저히 존중했다. 그러면서도 대중이 모여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때는 철저하게 대중 전체의 뜻을 물어 결정했다.

승가가 의결을 거치거나 분쟁(쟁사)을 해결할 때, **가장 이상적인 원칙은 결계 구역 내의 모든 비구가 참석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것**이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비구가 있다면, 자신의 의결권을 위임하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여욕(與欲)'**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그러나 정법과 계율에 의지해 사는 비구들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견해 차이나 지역적 관습으로 인해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논쟁이 가라앉지 않을 때 활용하는 최후의 해결 수단이 바로 다수결이며, 이를 '다멱비니(yebhuyyasikā, 多覓毘尼)'라고 부른다.

다멱비니를 통해 승가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먼저 투표를 공정하게 주관할 소임자를 선정한다. 이 소임자는 법과 율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탐애(chanda)·성냄(dosa)·어리석음(moha)·두려움(bhaya)이라는 네 가지 편견(사아곡)에 빠지지 않고**, 대중의 이익과 불이익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덕목을 갖춰야 한다. 이 스님을 '행주인(salākagāhāpaka, 行籌人)'이라고 부른다. '행주'에서 '주(籌)'는 대중의 수를 세거나 투표할 때 쓰던 대나무 막대기(산가지)를 뜻하며, 흔히 '산가지를 잡는다'고 표현하는 데서 유래했다.

여기서 현대 사회의 다수결과 승가의 다수결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현대 선거는 단순히 더 많은 표를 얻은 쪽이 승리하지만, **승가의 다수결은 반드시 '여법(如法,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에 부합함)'을 주장하는 편이 승리해야 한다.** 따라서 행주인은 단순한 투표 관리자가 아니라, 정법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적극적인 지도자 역할을 한다.

만약 투표 결과가 정법을 주장하는 이들(여법설자)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행주인은 산가지 선택 과정에 개입해 정법을 따르도록 유도하거나, 최후의 경우 투표 자체를 파기할 수도 있었다. 불교의 의사결정에서는 대중의 뜻이 아무리 다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법과 율에 어긋난다면(비여법) 결코 용인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진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소수라면, 행주인은 법에 근거해 반대편(비여법설자)을 끊임없이 설득해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야 했다. 진리가 왜곡돼 전승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투표와 설득의 과정을 반복했던 것이다.

붓다는 대중들이 가급적 다수결에 의존하기보다, 법과 율에 의지해 대화로 논쟁을 해결하기를 바랐다. 다수결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은 이유는, 표결 결과가 자칫 승가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가의 회의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됐으며, 행주인은 대중의 의견이 갈라지지 않고 끝내 화합할 수 있도록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야 했다.

즉, 승가의 다수결은 다수가 소수를 누르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화합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서로를 납득시키고 올바른 길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치열한 설득의 과정**이었다. 또한, 어리석은 다수가 잘못된 여론에 휩쓸리지 않도록, 끝까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 안전장치였던 셈이다.

붓다는 밧지족의 불퇴법(不退法)을 제시하며, 승가 역시 이와 같이 행한다면 오랫동안 쇠퇴하지 않고 번영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 중심에는 늘 '승가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의식을 행하고 소통하는 화합'이 있었다. 붓다는 특정 개인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다. 대신 대중 스스로가 법과 율에 의지해 바르게 살아가며, 끊임없이 대화하고 화합하는 공동체를 정립하고자 했다. 설령 의견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분열되지 않고, 끝내 화합함으로써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정법)이 이 땅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랐던 것이다.

금강 스님
해인총림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 직무대행

걷는 순간이
곧 수행이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발은 수행의 첫걸음, 땅과 연결된 걸음은
곧 마음의 고요입니다.

"모든 길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구경』

"마음이 청정하면 길도 청정하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Earthing Shoes Re-sense



재질 : 인조가죽

◆ 주요 특징
- 두 개의 끈 구멍, 단순함 속의 무소유
- 제로 드롭(3mm) 밑창, 땅과 하나 되는 균형
- 클래식 블랙, 흔들리지 않는 중심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결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몸과 마음이 고요하면, 걸음은 곧 선정이다."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Earthing Shoes Wide



재질 : 인조가죽

◆ 주요 특징
- 발가락을 옥죄지 않는 와이드 설계
- 인조가죽의 따뜻한 휴식
- 어싱(Earthing) 설계, 몸과 땅의 합일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결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